

1960년대 패션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양상

유미금* · 최정순

서해대학 피부미용과

A Study on the Hair style in Respect of Fashion Trend in 1960's

Yoo, Mee-Geum* · Choi, Jung-Soon

Dept. of Skin & Beauty, Sohae College
(2004. 4. 2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air style trend in the respect of fashion trend in 1960s. The study also attempted if there were significant influences to current hair designers and hair styles as beehive, mods hair, short cut, geometric cut, wigs, natural hair, unisex hair.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involving the collection of picture data and examine the art of the 1960's. Because 1960's is a revolutionary decade in the way of living and fashion trend. This study also adopted review of literature and analysis of magazines. 1960's was a period of major street fashion as Mods, Jackie Look, Miniskirt, Pop Art, Op Art Look, Space Look, Hippie Look, Unisex Look.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A review of literature had shown that little or no studies for an in depth analysis of 1960's fashion trend and hair design.
- 2) During the sixties, the trend of fashion and hair style were remarkable change in the way of living.
- 3) There were strong influences hair styles of 1960's until today.

Key words : fashion trend(유행의 경향), beehive(벌집모양의 올림머리), geometric cut(기하학적인 헤어 커트), wigs(가발), Jackie Look(재클린 케네디의 유행 스타일)

I. 서 론

아름다움 즉, 미(美)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토탈(Total) 개념을 패션(fash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패션은 토탈 뷰티(total beauty)의 이미지 역할로 의복,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hair style), 피부 미용, 메이크업(make-up), 네일 아트(nail art), 미용 문신, 미용 성형, 미용 비만 관리 등과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위대한 20세기의 기호학자 다이아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에 따르면 여성의 스타일은 헤어에서 시작하여 의상 쪽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바 있다¹⁾.

특히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매개체로서 현대로 올수록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분위기와 기초를 알려 주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된 임석종의 '패션 트렌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정임숙의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

*Corresponding author: Yoo, Mee-Geum
E-mail: yoohair2002@yahoo.co.kr

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전반적인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그 중 20세기를 통틀어 볼 때 1960년대는 헤어스타일의 과도기적 시발점이 된 해이다. 1960년대는 격변의 시대로 패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변화가 심하였고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다양했던 헤어역사상 중요한 10년이었다. 특히 모든 헤어스타일이 공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²⁾.

그리하여 1960년대로 테마를 선정한 이론적인 배경은 첫째, 2000년대를 전후로 1960년대의 복고 경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전 세계 주요 패션 도시의 2003-04년 추동 컬렉션에서 1960년대 스타일의 응용이 돋보였으며, 미니스커트, 스페이스 룩, 모즈 룩, 옹 아트 등이 새로운 패션 키워드로 활용되었다. 둘째, 현 세대는 1960년도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 층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전사상과 같은 사회 분위기는 1960년대의 베트남 전과 현재의 이라크전의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흥미를 일으켰으며 셋째, 1960년대를 기점으로 헤어스타일이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의 시발점으로는 헤어 디자이너인 비달 사순(Vidal Sassoon)을 들 수 있다. 즉, 비달 사순을 기점으로 현대적인 헤어 디자인의 형태가 보여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패션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그는 패션 디자이너 못지않게 현대 디자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부분에서 영향력이 컸던 비달 사순의 스타일을 탐구하는 것은 그가 시도한 스타일이 현대에도 활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가 창안한 스타일, 테크닉, 미학을 탐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의 주요 패션경향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국내외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및 잡지 등의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헤어스타일이 학문적 연구대상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기로 한다.

II. 본 론

1. 1960년대 패션 트렌드

1960년대는 영 패션의 시기로 불리어졌으며 당시의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다. 로큰롤 음악이 비틀즈 이후, 롤링스톤즈 등에 의해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에드워드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이미지를 차용한 현대적인 의상을 입었다³⁾. 1960년대는 패션의 구조적 측면에도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맞춤복의 시대는 가고 본격적인 기성복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도 고급 기성복 산업에 진출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스트리트 패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모즈 룩(Mods Look)을 필두로 제키 룩(Jackie Look), 미니스커트(Mini Skirt)와 팝 아트(Pop Art), 옹아트 룩(Op Art Look), 스페이스 룩(Space Look), 히피 룩(Hippie Look), 유니섹스 룩(Unisex Look) 등이 나타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특히 1960년대에 직물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조섬유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기성복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고급 수준으로 개발되어 패션 소재로 쓰이게 되었으며, 천연 섬유의 방추 가공, 방염 가공, 방축 가공법도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신소재들은 젊은 음악인들이 먼저 차용하였다.

2. 1960년대 헤어스타일의 변천

격변의 1960년대는 다양한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으며 머리의 기장도 가장 짧은 기장부터 가장 긴 기장까지 모든 기장의 머리모양이 공존한 시기였다. 1960년대 초에는 1950년대에 이어 꾸준한 인기를 누렸던 올림머리인 부팡(Bouffant)스타일<사진 1>과 더욱 세련되어 보이는 비하이브(Beehive)스타일<사진 2>, 1953년을 전후로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시농(Chignon) 스타일<사진 3>, 호랑이 꼬리를 연상시

<p><사진 1>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부팡, 1962(Haircults, p.41)</p>	<p><사진 2> 뾰족한 산봉우리같이 변형된 비하이브 (Haircults, p.43)</p>	<p><사진 3>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오드리헵번의 시늉, 1961 (20th century fashion p.179)</p>	<p><사진 4> 타이거 테일 (미용문화사, p.216)</p>

키며 파티나 밤무대용으로 유행했던 타이거 테일 (Tiger Tail)스타일<사진 4>등의 유행이 지속되다가 커트 테크닉이 발달하게 시작하면서 가발이 유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발에만 시행되었던 커트들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트위기 같은 모델이나 비틀즈 같은 연예인들에게 시술되어 인기를 끌었다.

셋팅, 아이롱 스타일에는 머리를 부풀려 얼굴을 둘러싸게 연출하여 시들은 양배추를 연상시키는 양배추 머리(Bubble Style)라 불리는 스타일과 풀립을 연출하여 바깥 말음을 한 스타일, 미국 컨트리 가수들의 망아지 꼬리를 연상시키는 포니테일 스타일, 미국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인디언처럼 쪽 편 스트레이트 스타일 등이 있었다.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져 갔다. 여성들은 더 이상 세트 스타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손질하기 편한 헤어스타일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여성들의 해

방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각도의 커트를 창안한 비달 사순은 물 속에서조차도 아름다운 커트 머리를 강조하며 기하학적인 각도의 커트 방법을 창안했다. 이 커트들은 현재에도 모든 커트의 기본이 되고 있다.

마리아 카리타(Maria Carita)⁵⁾ <사진 5>는 미용 학교를 개원하고 남성 살롱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으며, 알렉상드르 레이몽(Alexandre Raymond)⁶⁾은 시늉 스타일로 명성을 얻고 백콧 쇼트 헤어를 개발하여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모았다<사진 6>. 자크 데상쥬(Jacques Dessange)는 움직임이 있는 커트와 부분적으로 빗지 않은 듯한 머리 스타일(Coiffe-decoiffe)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 보그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였으며, 버즈 커트(Buzz Cut)와 디지털 커트(Digit Cut)를 선보인 헤어 스타일링의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린 크리스티앙(Christiaan)<사진 7>등이 헤

<p><사진 5> 마리아 카리타의 'sun shine' 1968(Beauty, 163)</p>	<p><사진 6> 알렉상드르 레이몽 (Beauty, p.162)</p>	<p><사진 7> 크리스티앙의 디지털 커트 (Hair Style 세기의 헤어아트 스트, p.31)</p>

어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이와 함께 반전 운동의 반항적인 면과 민속풍의 이국적인 면에 히피가 출현함으로 인해 내추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내추럴 헤어스타일의 발달은 유니섹스적인 헤어스타일의 발달로 이어졌다.

3.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양상

1) 재키 룩(Jackie Look)과 비하이브(Beehive)

6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가 유행의 주인이었다. 제키(Jackie)라는 애명의 그녀는 젊은 30대의 매력을 맘껏 발산하며 전 세계의 유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옷차림은 미국 디자이너 올레그 카시니(Oleg Cassini)가 맡았다. 그의 스타일은 프랑스적인 느낌이 가미된 미국식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저녁 파티에는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낸 이브닝드레스를 입었고 시내에 다닐 때는 바지 정장을 입었으며, 장식 없는 깔끔한 단색조의 의상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프린세스 드레스나 시스 드레스에다가 헐렁한 재킷을 즐겨 입었는데 이것이 큰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서 어린이용의 챙이 넓고 휘어져 올라간 모자나 그녀로 인해 인기를 끌게 된 필 박스(pill box)를 썼다. 제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던 분홍색은 1962년에 그 해의 유행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사진 8>.

많은 여성들은 필 박스라는 모자와 장갑을 애용했던 재클린 케네디 영부인의 스타일을 모방했다. 헤어

스타일은 필박스에 잘 어울리는 비하이브(Beehive)라는 스타일로 머리를 적당히 커트하고 나서 살짝 부풀리거나 정수리에 도너츠 형의 부분가발을 사용하여 머리를 부풀게 하였는데 부풀림은 머리의 길이와 상관없이 긴 머리카락이나 짧은 머리에 사용되었다. 그 부풀림의 영킴 모양이 벌집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하이브<사진 9>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 스타일은 절제된 듯 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보였다⁷⁾.

후기로 갈수록 입체감 있는 스타일로 강조되었는데 그 모양이 거대하고 B-52폭격기를 닮았다고 하여 B-52<사진 10>라는 이름을 가진 스타일도 있었다⁸⁾.

2) 모즈 룩(Mods Look)과

모즈 헤어스타일(Mods hair style)

영 패션의 시기로 지칭되는 1960년대는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풍습을 초근대적으로 훔쳐 내면서 사회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복장 스타일, 즉 모즈룩을 유행시켰다⁹⁾.

196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의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와 킹스 로드(Kings Road) 지역이 그 시작으로 이른바 경쾌한 이태리나 프랑스의 모더니스트 분위기가 영국의 십대들에게 차용되면서 생긴 스타일이다. 이는 1950년대의 거칠고 반항적인 젊은이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며, 기본적으로 자기애에 빠져 있는 요소가 강하다¹⁰⁾. 처음 모즈 소녀들은 백컴 스타일을 선호하다가 나중에는 짙 퍼진 스트레이트 머리를 선호하였다.



<사진 8> 재키의 분홍색 필박스와 헤어스타일, 196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p.31)



<사진 9> 재키의 비하이브 뒷모습 1962 (In the Kennedy Style, p.83)



<사진 10> B-52 헤어 (Haircults, p.42)

1960년대 미국 여학생들이 선호한 스타일로 그들 중에는 머리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 머리카락을 두 개의 갈색 종이에 넣고 옷을 다리는 다리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종종 높은 표시가 나서 머리를 자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¹¹⁾<사진 11>.

‘In Mods!’(1979)는 이러한 주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서 리처드 반즈(Richard Barnes)에 의해 쓰여졌다. 거기에는 이탈리아 헤어 커트는 1960년경에 왔으며, 모든 헤어 드레서들이 이탈리아 헤어 커트로 시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남자들의 머리를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기보다 심플하게 커트하여 주었다. 가르마 비율이 6 : 2가 되는 페리 코모(Perry Como) 커트는 기존의 것과 차이가 있으며 다른 상태의 헤어스타일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머리에 오일이나 포마드를 바르지 않았으며, 그 당시 헤어 드레서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주지 않으면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더 짧은 길이의 프렌치 칼리지 보이(French college boy) 커트가 나왔고 그것은 2인치 정도의 크루 커트(crew cut)였는데, ‘프렌치 크루’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는 좀 더 높은 분할선을 가진 칼리지 커트였다. 하지만 독창적인 모즈 헤어 커트는 백콧한 머리이며, 머리의 분할선 높이의 반 정도 짧은 길이의 머리 뒷부분을 볼록하게 높여 주는 것이다. 백콧할 때 쓰는 특별한 버블 콤(bubble comb)은 기본적인 미용 도구였고 남자들은 머리를 그 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머리카락은 빗질한 후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여 2-3

인치 정도 올려 세울 수 있었다. 가수 로드 스투어트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백콧 머리를 한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가 6인치 정도의 길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후두부 앞쪽에서 세웠다¹²⁾라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유명했던 팝 그룹 후(The Who) <사진 12>의 헤어스타일이 모즈룩의 대변자였고, 독창적인 모즈클론 밴드인 후는 더 헤어(The Hair) 라고 불리어졌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즈 스타일의 중요한 것들이었다¹³⁾. 또 비틀즈의 프랑시스 세자르 커트의 일종인 앞머리를 살짝 덮는 스타일로 ‘뭉 톱(Mop Top)’ <사진 13>이라고 불리는 비틀즈 커트는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었는데¹⁴⁾ 그 디자인을 응용한 가발은 비틀즈 가발이라고 불리면서 불티나게 판매되었다. 그 후 모즈 헤어는 196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유니섹스 헤어로 발전하게 된다.

3) 미니스커트(Mini skirt)와

숏컷 스타일(Short cut style)

1965년대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미니스커트가 출현하였다. 미니는 60년대 초 디자이너인 자크 들라에(Jacques Delahays)에 의해 첫선을 보였으며 65년 영국의 디자이너 마리 콰트와 조안 휘르(Joan Huir)에 의해 애호를 받기 시작하였다. 마리 콰트는 비달 사순의 적극적인 협력자였으며, 비달사순의 헤어는 기본적으로 짧은 스타일로서 마리 콰트의 영 패션<사진 14>과 접목되었다. 비달사순은 대부분 유니섹스 분위기의 헤어스타일로 마리 콰트의 패션과 스타일을 맞추었다. 마리 콰트가 디자인한 미니스커트는



<사진 11> 다리미로 스트레이트 헤어를 만들고 있는 여학생들, 1965-1967 (Haircults, p.41)



<사진 12> 모즈 스타일의 팝 그룹 “후”의 ‘The hair’, (Sixties Source Book, p.152)



<사진 13> 비틀즈헤어의 ‘뭉 톱’ 스타일, 1963 (Haircults, p.49)



<사진 14> 비달 사순 헤어와 마리 쿼트의 영 패션 집록
(20세기 패션, p.209)



<사진 15> 모델 트유키의 미니스커트와 숏커트
(Fashion in the 60's, p65)

당시의 모델이었던 트유키(Twiggy)의 가냘픈 몸매와 천진난만한 모습에 비달사순의 단발머리(bob hair style)와 함께 선보였으며, 당시 미나는 노동 계급과 중간 계급 출신의 여성들이 즐겨 입었는데 패션 전문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패션으로 창조되기도 하였다. 모델 트유키(Twiggy)가 미니스커트<사진 15>를 입었을 때 그녀는 작고 깡마른 체구의 꺾어진 스타일의 소녀 같은 분위기였다. 이 같은 트유키 타입은 젊은 여성들에게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마리 쿼트는 영 룩(Young look)을 창조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그녀의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 5~6인치의 미니에서부터 8~10인치의 마이크로(micro) 미니스커트도 있었다. 마리 쿼트의 패션과 스타일을 맞춘 트유키의 짧은 머리는 정확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뒷머리는 꼬리 모양으로 1인치 정도의 길이이고 앞쪽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으며 밝은 갈색 머리가 선호되었다. 머리카락은 깨끗하게 커트되었고 전체 길이가 층이 낮으며 손질하기 쉬웠다. 보이쉬한 스포티 헤어 커트는 소년처럼 보이는 스타일로 1920년대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의 변형이자 푸딩 그릇 같은 모양새이다. 그리고 트유키의 또 하나의 스타일은 인형 같이 꺾어진 소녀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언뜻 보아서 성이 구별되지 않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복합적으로 갖춘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다¹⁵⁾.

4) 팝 아트 & 오페 아트 룩(Pop Art & Op Art Look)과 기하학 or 비대칭 헤어스타일

1960년대는 대중예술인 팝 아트가 유행하였다¹⁶⁾. 팝아트 패션은 팝아트 작품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브 생 로랑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매스컴에 의해 파리 꾸뛰르 계의 어린 왕자라고 불리었다¹⁷⁾. 그는 1965년 봄 컬렉션에 이른바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을 발표하여 현대적인 추상 회화를 패션에 도입하였는데 이 때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일직선의 앞머리와 여성스러운 올림머리를 연출하여 기하학적이면서 부드러움이 같이 표현되었다<사진 16>. 그 후, 팝 아트 컬렉션을 발표했으며 앤디 워홀의 팝 아트를 드레스에 활용하였다. 그것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이미지가 담긴 아주 심플한 원피스가 기본이었으며, 헤어스타일은 굵은 웨이브의 롱 헤어스타일을 비대칭적으로 언밸런스하게 연출하였다<사진 17>. 이브 생 로랑은 한동안 유니섹스 모드를 추구하였고 사파리 재킷과 바지가 포함된 판탈롱 수트를 내놓았다.

1963년에 마리 쿼트는 비달 사순에게 모델의 목 위로 흘러내리는 거추장스런 헤어에 대해 불평하자 비달 사순은 과감하게 한번 잘라 보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마리 쿼트가 동조하였다. 비달 사순의 생각은 간단한 것이었는데 뒷머리 중앙부를 짧게 커트하고 얼굴 쪽으로 오면서 점점 길게 커트하는 것이다. 얼굴 옆면의 턱 선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었다<사진 18>. 옹가로는 비달 사순과 공동 작업으로 파리 컬렉션에 패션 디자이너로서 데뷔하였다. 그의 컬렉션에서 비달 사순은 비대칭의 쇼트 헤어 디자인을 선보였



<사진 16> 이브생 로랑의 몬드리안룩
(서양복식문화사, p.389)



<사진 17> 앤디워홀의 이미지가 담긴
이브생 로랑의 팝 아트룩
(이브생로랑, p.29)



<사진 18> '파이브포인트 cut'을 마리관
트에게 시술하는 비달사순,
1964(20Th Century Fashion,
p.207)

는데 이것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컬러는 오렌지, 핑크, 청록색 등 대담하게 사용하였다. 전위적인 스포츠웨어 디자이너였던 루디 게른라이히는 1964년 탑플리스(topless) 수영복 <사진 19>을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비달사순은 그와 함께 공동으로 실험적인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찝막하고 각이 져 보이면서도 유려한 헤어스타일이 기본이었다.

옵아트는 아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교묘하게 반복하여 새로운 시각 체험을 선사하는 미술이었다. 바자렐리(Vasarely)의 미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군의 작가들이 새로운 탐색을 시작하였다¹⁸⁾. 브리짓 릴리(Brigit Lilly), 피터 시즐리(Peter Sizley), 피에트로 도라지오(Pietro Dorazio)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옵아트의 요소는 직물의 무늬나 색상 등 패션 소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현란한 시각적 효

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옵아트는 사이키델릭룩(Psychedelic Look)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였다. 옵아트의 헤어스타일로는 가발을 이용한 비대칭으로 과장된 헤어 스타일이 잘 어울림을 알 수 있다<사진 20>.

5) 스페이스 룩(Space Look)과 가발(Wigs)의 사용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처음 비행하였고, 1962년에는 미국인 존 글렌(John Glenn)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 하였으며, 1963년에는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가 생기는 등 우주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시스루 의상, 긴 부츠, 바디 수트(캣수트), 레깅스 등 우주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의상으로 인기가 있었다. 제인 폰다(Jane Fonda)는 '바르바렐라'라는 우주 영화에 출연 하였는데 그 영화 속의 배우들은 PVC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니멀한 의상을 입었다. TV드라마 '스타트랙'과 스탠리 큐브릭(Stanley



<사진 19> 루디 게른라이히의 토폴리스
수영복과 비달사순 헤어
(The Rudi Gernreich Book,
p.71)



<사진 20> 옵아트의 영향을 받은 드레스와 비대칭 헤어스타일
1967(서양복식사, p.389)



<사진 21> 쿠레쥬의 스페이스룩과 가발
(Courreges, p.44)



<사진 22> 히피의 내츄럴 헤어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57)



<사진 23> 아프로 헤어 스타일
(20세기 패션, p.215)



<사진 24> 피에르가르맹의 중성적 헤어
스타일 (Sixties, p.66)

Cubrick)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미래적인 의상이 나왔다. 그 뒤로 하이 패션에서도 이러한 스페이스 룩이 응용되었다¹⁹⁾.

우주 패션의 대명사로는 꾸레주를 거론할 수 있는데 그는 일종의 건축 엔지니어와 같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으며, 처음에 발렌시아가 밑에서 디자인을 배웠다. 꾸레주의 혁명은 파리의 오프 꾸뛰르를 자극하여 함께 변화에 동참하게 하였다.

꾸레주의 컬렉션은 우주 공간 같은 분위기의 미래적인 룩을 제시하였고, 비탈 사순이 이 컬렉션에 헤어를 담당하였다. 가발에 시도한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커트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컬렉션은 무엇보다도 비탈 사순의 헤어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헤어스타일의 선과 선, 각과 각, 면과 면의 대비가 돋보이는 스타일이었다.

1960년대는 커트가 발달하면서 가발은 실용적인 제2의 머리가 되었고 과감한 스타일을 원하는 패션 리더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우주 패션의 공상적인 의상과 매치되는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데는 칼라와 디자인 면에서 가발이 단연 우세하였다<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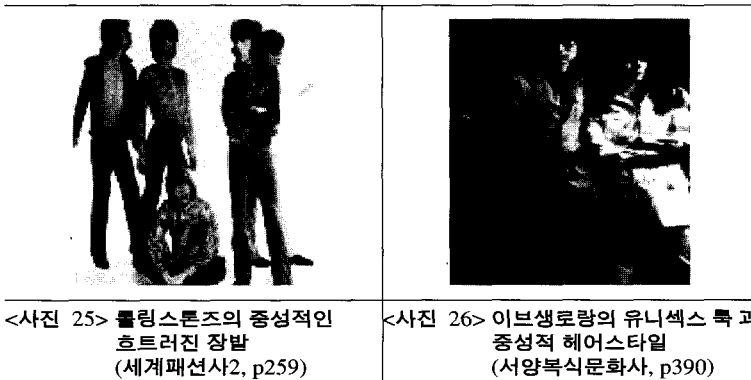
6) 히피 룩(Hippie Look)과

내츄럴 헤어스타일(Natural hairstyle)

1950년대는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미국 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이 흐름은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형성되었는데 히피들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털 차려 입은 스타일로 기본 컨

셉은 에스닉(ethnic)과 노스탈지아(nostalgia)라고 할 수 있다. 물질문명, 전쟁, 환경오염에 대한 저항으로서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낡은 군복, 국기 의상, 중고 의상 등으로 나타내었고, 전통 기성세대에 저항하여 블루진, 유니섹스 웨어, 여성의 가슴 노출, 남자의 긴 머리, 너저분한 외모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서구 중심의 도시화에 반발하여 제 3 세계의 민속복, 농부의 작업복, 집시 의상 등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낡고 빛이 바랜 듯한 색상의 옷차림이 선호되었으며 그밖에도 시간과 공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기도 했고 민속 복식을 이용하기도 했다²⁰⁾. 풀어헤친 긴 머리가 히피의 상징이었고, 그것은 자연과 자유를 의미한 것으로 어떤 머리 손질도 거부했다. 이른바 히피들은 노 헤어(No Hair)를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22>. 머리 형태에 일정한 틀을 주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긴 머리를 다듬지 않은 채로 그대로 풀어헤쳐서 자연스럽게 야생적으로 보이는 모양을 내었다. 가끔 퍼머넌트까지 한 긴 머리가 있었고 남미의 인디언처럼 구슬을 꿰 머리카락과 스카프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머리의 색조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많았고 화장은 거의 안 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복숭아색, 갈색, 회색 메이크업으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히피 스타일은 흑인들의 아프로 스타일<사진 23>과 고도로 장식된 사이키델릭 스타일로 변형되었으며, 1970년대의 펑크 헤어스타일(Punk Hair Style)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7) 유니섹스 룩(Unisex Look)과 중성적인 헤어스타일
1967년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유니섹스 룩은 처음에는 젊은 층이 중심으로 수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전 사회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이른바 체육복 같은 차림이 유니섹스 룩의 원조라고 볼 수 있으며, 모즈 풍이 유행할 때 이미 유니섹스적인 요소가 있었다. 1963년 - 1964년에는 기능적인 스포티브 룩이라 하여 작업복 스타일이 정장으로 이용되었고²¹⁾, 후에 피에르 카르텔 등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적극 수용하였던 남녀 구분 안 되는 비슷한 옷차림의 중성적인 스타일이다<사진 24>. 합성섬유와 가죽, 면 소재가 선호되었으며 특히 다양하게 개발된 합성섬유가 주 아이템이었다. 터틀넥 폴오버, 청바지, 로빈훗 가죽 재킷, 미국 서부지방의 가죽 카우보이 바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청바지인 데님 진은 유니섹스적인 요소를 강하게 응집하고 있는 아이템으로서 무계급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입기 시작하였으며²²⁾, 남녀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유니섹스 룩은 1960년대 중반부터 넓게 퍼져 나갔다. 또한 화장을 외모를 꾸미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곱게 머리를 빗어 윤이 나는 머릿결을 지닌 남성들도 등장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짙막하고 경쾌해 보이는 단발 머리 스타일이 기본이 되어 남녀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여성은 숏컷, 남성은 장발을 선호한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었다<사진 25>. 여성의 룩 헤어에서 조차도 스포티하면서 강하고 분명한 원랭스(솔리드)형태

의 직선을 앞머리와 형태 선에 사용하였다<사진 26>.

III. 결 론

21세기인 오늘날, 40년 유행주기라는 말에 맞추기라도 한 듯 1960년대의 유행들이 다시 재현되면서 현대패션과 접목되어 표현되고 있다. 루이뷔통(Louis Vuitton)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의 모즈 룩을 선두로 재키 룩, 트위기의 미니 등이 다시 현대 패션으로 부활되고 있다. 최근 몇 시즌동안 유행의 복고 경향은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올 가을 컬렉션에서도 복고 열풍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60년대 풍이 강세이다. 헤어스타일의 최근유행 경향에서도 '올 가을의 테마는 복고 풍이며 전체적으로 풍성한 웨이브와 세련된 컬러가 돋보인다. 특히 내추럴한 스타일은 꾸준한 인기 몰이 중' 이라고 월간 '뷰티 패션'잡지에 소개되어 있다.

1960년대의 패션 트렌드 경향을 정리해 보면 꾸뛰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이 교차한 시대였다. 기성복 산업이 맞춤복 의류산업을 압도한 시대였고, 영 패션이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헤어스타일의 경향도 1960년대와 비슷하고 유행이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비슷하다. 격변의 6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영 패션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주도하에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짧게 자르고, 뒤로 빗어 올려 다양한 스타일로 개성을 살렸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졌고,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의 성향을 따랐으며 더 이상 세트 스타일(set style)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발을 사용하거나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다양한 색상의 염색약이 개발 되었고, 탈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정 없는 머리에 표정을 연출 하였다.

즉, 헤어스타일이 의상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패션을 리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특별한 10년 이었다. 헤어스타일이 점점 패션과 접목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면은 재키 헤어에서 볼 수 있다. 필 박스(Pill Box) 모자에 어울리는 머리를 위해 비하이브 스타일이 모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입체감 있게 연출되었고, 영 패션의 모즈 룩에 어울리는 깔끔한 모즈 헤어 인 백폼 스타일과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인기였다. 젊은이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짧은 미니스커트에 어울리게 헤어의 기장이 짧은 숏컷트가 연출되었으며, 팝 아트와 윌 아트의 예술적인 이미지에 잘 맞는 언발란스 헤어스타일이나 비탈 사순의 기하학적 커트 스타일 등이 비대칭으로 응용 되었다. 우주시대에 어울리는 스페이스 룩은 짧은 커트와 기하학 커트 스타일을 다양한 색상의 가발에 연출하여 공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 패션 분위기에 따라 히피 스타일에서는 내츨한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노 헤어'가 주를 이루며 에스닉한 장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추구하였다. 히피 헤어스타일에서 발달한 유니섹스적인 중성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의 기본인 남녀의 성 구별 조차도 힘들게 만든 스타일을 연출하였는데, 남성은 남성 본연의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인 장발 스타일을 여성은 활동적인 숏컷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남녀의 성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관계된 여성 활동의 역량이 점차 커짐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재키 룩에는 비하이브, 모즈 룩에는 모즈 헤어스타일, 미니스커트에는 숏컷 스타일, 팝 아트&윌 아트 룩에는 기하학 or 비대칭 헤어스타일, 스페이스 룩에는 다양한 가발의 사용, 히피 룩에는 내츨한 헤어스타일, 유니섹스 룩에는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는 모든 헤어스타일이 공존했던 시기로

기장도 가장 짧은 길이에서부터 가장 긴 기장의 머리까지 다양한 시대였으며, 스커트 기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미니에서부터 미디, 맥시 등 긴 기장의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특히 한 점은 머리기장이 짧아질수록 스커트 길이도 짧아지고 활동성 있는 옷을 입는 반면, 머리기장이 길수록 의상도 우아하거나 스커트 기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유행의 주기가 40년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1960년대의 젊은이였던 이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 층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에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데 민감했던 부모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유행에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다.

헤어스타일에서도 커트 스타일이 단연 강세다. 1960년대와 같이 펌과 염색은 커트를 보완 하는 역할에 미치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커트의 경향이 끝 처리가 많이 가벼워 졌다는 것이다. 현재 커트 스타일은 1960년대의 베이직, 기하학적 커트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똑같으나 가위, 턴닝, 레이저(razor)를 이용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많은 커트를 하는 경향이 있고, 내츨한 하면서도 질감 처리를 많이 하여 샤키한 느낌을 주며 볼륨이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커트 스타일이 병행 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60년대는 많은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 격변기, 변혁기 등 많은 단어가 붙는다. 헤어스타일도 그중 하나였다. 많은 스타일이 서로 같이 어울려 변화의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현재에도 비탈 사순은 헤어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더 창출할 수 있게 하고, 헤어스타일의 비중을 크게 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선구자적인 기하학 헤어 커트 스타일 뿐 만 아니라 헤어에 관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연출하는 특출한 헤어 디자이너중 하나이다. 헤어스타일이 의상 스타일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패션을 리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그가 패션 디자이너들과 접목한 헤어스타일들이 좀 더 깊이 연구되어 평가되고 자료화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지금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으며, 현대 패션에 지속적인 아이디

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발의 활용이 많았던 시기로 좀 더 상세한 가발의 종류와 역할 또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 1) Beauty & Health 연구회(2001). 세기의 헤어 아티스트. 현문사, p.19.
- 2) Bevis Hillier(198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조규화 역. Dutton Inc, p.9.
- 3) David Bond(2000).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p.197.
- 4) www.fashion-world.co.kr/libra/20c/1960.htm. 2003. 7.
- 5) Nathalie Chaine 외(2000). Beauty-the Twentieth Century, Universe, p.163.
- 6) Dylan Jones(1990). Haircults. Thames & Hudson, p47.
- 7)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192.
- 8) Dylan Jones(1990). '앞의책', p.50.
- 9) David Bond(2000). '앞의 책', p.197.
- 10) 이연희, 이운영, 이현숙, 진성모(1997). 패션문화. 예학사, p.99.
- 11) Dylan Jones(1990). '앞의책', p.41.
- 12) Dylan Jones(1990). '앞의책', p.50.
- 13) Dylan Jones(1990). '앞의책', p.50.
- 14) Dylan Jones(1990). '앞의책', p.48.
- 15) J. 앤더슨블랙, 매튀가랜드,(1997). 세계패션사2. 윤길순 옮김, 김진수 감수, p.234.
- 16) 이연희외 3인(1997). '앞의책', p.99.
- 17) Francois Baudot,(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p.192.
- 18) Nigel Cawthorne,(1989). Sixties Source Book. Chartwell Books Inc. p.45.
- 19) Yvonne Connick,(1999).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atsford, p.44.
- 20) 정경희(1996). Street Fashion의 발생과 유행현상. 효성가톨릭대 대학원. p.49.
- 21) www.10000shop.co.kr/fashion/history/1960.htm. 2003. 9.
- 22) 이연희외 3인(1997). '앞의책', p.152.